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김지원 카린, 김주형 엠마누엘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 주 미사 독서: 김현우 요셉, 이재니수 로사	교무금: \$950
금주 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월프레드	봉헌금: \$196
다음 주 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월프레드	감사헌금: \$500
금주 미사해설: 조성익 토마스 모어, 조은경 수산나	합계: \$1,646
다음주 미사해설: 우명희 카타리나, 최고은 소피아	봉헌봉사: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최고은 소피아
회 계: 김정기 토마스 아퀴나스, 심윤필 베르나르도	다음주 봉헌봉사:
친교실 정리: 대학원 구역	전은숙 글라라
	* 매월 마지막 주는 2차헌금이 있습니다.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친교/간식 모임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사제관 (5월 18일)
성모회 금요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 참조)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오후 2시 45분 성당친교실 (5월 26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8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집 (5월 25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넷째주 토요일 미사 후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미사 후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미사 후
대학원 구역	미정
학생부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야유슈비츠의 성인인 막시밀리아노 콜베 신부를 떠올리게 합니다. 폴란드를 침공한 나치는 당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콜베 신부를 체포하여 죽음의 수용소에 가둡니다. 수용소의 규칙에, 수감자 한 명이 도망쳤을 경우 그 사람이 속한 방의 열 명을 무작위로 뽑아 끔찍한 지하 감방에서 굶겨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콜베 신부가 구금된 수용소에서 수감자 한 명이 탈출했습니다. 수용소의 소장은 수감자들을 광장에 열지어 세워 놓고 아사(餓死) 감방으로 갈 열 명을 골라내었습니다. 뽑힌 열 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콜베 신부는 동료들을 해치고 앞으로 걸어 나와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겠소.” 하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무시무시하고 참혹한 감방에 갇힙니다. 절규와 비탄의 소리가 가득했던 감방은 콜베 신부로 말미암아 기도와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잔혹한 지하 감방이 교회로 변한 것입니다. 콜베 신부는 물과 음식을 없이 2주간을 견디다가 결국 독극물 주사를 맞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콜베 신부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마태 5,44)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욕을 용서로, 저주를 기도로 바꾼 사랑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사랑만이 미움을 이기는 비결임을 일깨워 주었고, 타인을 지옥처럼 경계하는 세대에 함께 사는 것의 소중함을 알려 주었습니다.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김태진 하상 바오로
(608) 628-7977

부활 제 6 주일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년 5월 12일

<제 1 독서> 사도행전 10,25-26.34-35.44-48

<제 2 독서> 요한 1 서 4,7-10

화답송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또는 ◎ 알렐루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복음 15,9-17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시작:414 봉헌:253 성체:179 파견:128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강우 클레멘스 신부 / 천주교 부산교구 범서성당 주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살아가는 동시에 죽어가고 있으며, 죽음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생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즉, 어떻게 죽느냐 하는 질문과도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 12)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으로서 사는 길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도 말입니다. 하물며 신앙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는 더욱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어렵고, 가장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은 하느님에 관한 가장 멋진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모든 사랑은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사랑이며, 그 사랑의 극치는 벗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정체와 본질을 꿰뚫어 보아서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체험하고서 하느님이 사랑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로 인해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푸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사랑의 배움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움’과 ‘사랑’과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지만 미움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남도 살리고 자신도 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움으로 남을 죽이면 자신도 역시 죽이게 됩니다. 이렇듯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숨 쉬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든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도록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 17)

† 공지사항

1. 5월 바자회 대신 기부금 모금 진행

Year	Month	수입	지출	차액	총 누계	특이사항
2011	누계	\$39,731.93	\$43,643.89	-\$3,911.96	-\$3,911.96	
2012	1	\$4,994.22	\$4,795.13	\$199.09	-\$3,712.87	피정
	2	\$2,781.49	\$5,125.96	-\$2,344.47	-\$6,057.34	St. Paul
	3	\$2,621.16	\$2,531.17	\$89.99	-\$5,967.35	
	4			\$0.00	-\$5,967.35	
	5			\$0.00	-\$5,967.35	바자회

- 기부금 목표액 : \$4000 이상, 각 구역별 목표 금액을 설정
- 모금 기간 : 5월 5일 부터 26일 까지 3주간
- 모금 방법 : 각 가정/개인이 무기명 봉투에 기부금을 넣고 밀봉하여 구역장에게 전달

2. 2012년 여름 캠프

- 일시 : 6월 29일~7월 1일 (2박 3일)
- 장소 : Pine Lake

3. 어머니날 축하 (5월 13일)



부활 삼종기도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